불꽃이 향기가 되어 2

20세기를 살아간
다섯 사람 이야기

■ 구상 요한 세례자 시인 겸 언론인, 교수로 재직하며 40여 권을 내놓으면서 구도 시인으로서 문학적 삶을 꽃피웠다. ■ 김구정 이냐시오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여생을 바친 교육자, 교회사 연구와 집필에 열중하면서 여생을 바쳤다. ■ 김금룡 가이오 레지오 마리애의 초석을 놓은 기도의 일꾼. 목포 산정동본당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레지오 마리애 쁘레시디움을 발족했다. ■ 박병래 요셉 성모병원의 기초를 다진 의사. 1936년에 설립한 성모병원의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해 20년간 봉직하면서 병원의 기틀을 다졌다. ■ 양한모 아우구스티노 공산주의자였다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평신도 신학자. 가톨릭에 귀의한 후에는 평신도신학과 통일 사목을 화두로 삼아 연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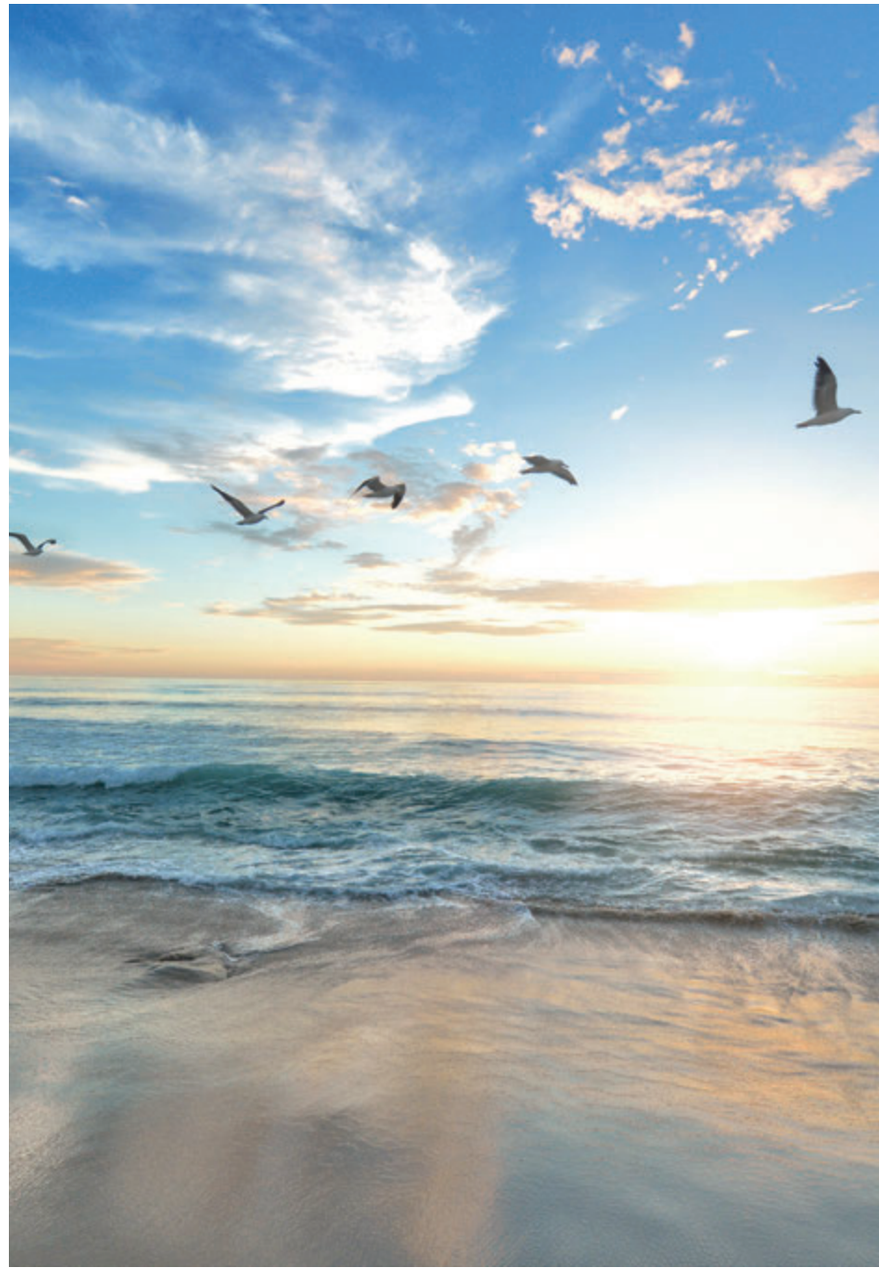
책값: 13,000원 엮은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펴낸곳: 도서출판 으뜸사랑 판매처: 가톨릭출판사 직영서점, 인터넷서점(예스24, 인터파크, 영풍 등)

2017년 여름 계간 56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

2017년 여름



「Vol.56」

- **인사** 회장 인사말
- **만남** 신동주 원주평협 회장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나눔** 평신도 연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2
- **이야기**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1
- **특강** 교황 프란치스코와 소공동체 1
- **배움** 평신도 양서 수도회 영성 영화 속 '인간과 세상'
- **소식** 교구평협·회원단체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7년 여름
계간 56호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회장 인사말 / 권길중

만남
04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09 평신도가 뛴다 / 권지영

특집
12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16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김문태

나눔
19 평신도 연구 / 황경훈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2 / 이창훈

이야기
26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1 / 박정일

특강
29 교황 프란치스코와 소공동체 1 / 이병호

배움
34 평신도 양서 / 류주희
36 수도회 영성 / 정혜원
39 영화 속 인간과 세상 '사일런스' / 이대현

소식
43 교구평협 · 회원단체

발행인 권길중 바오로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편집위원 권지영 데레사, 김문태 힐라리오, 나권일 토마스, 류주희 클로틸다, 명백훈 프란치스코, 서상덕 스테파노,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회장 인사말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권길중 바오로 한국·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6-19).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수난 직전에 당신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가득한 사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을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유언처럼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참 전개 중인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결심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 의지가 약해졌다면 눈앞에 보이는 ‘스티커’가 경고등처럼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만일 내 의지가 약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실패할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우리를 용서해 주실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다시 시작하는’ 일에만은 훨씬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자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혹은 뜻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을 해내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이 미워질 만큼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능을 느낄 때, 심지어 뜻밖의 일로 놀라게 될 때도 하느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부름이 바로 내가 하느님의 아들(딸)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표지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 공직자답게 살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수에서 전국의 그리스도인 공직자와 그 가족 3천여 명이 ‘그리스도인 공직자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분들 모두는 현지 교구 주교님께서 주례하는 미사 중에 당신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직을 하느님께서 그 직에 불러주신 성소(聖召)로 규정합니다. 자기의 진로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알고 그 방면의 공부를 꾸준히 하였고,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쟁취한 직업임에 틀림없지만, 하느님께서 그 직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셨고, 그 직을 수행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일 겁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소의식을 가지고 근무한다면 먼저 그 직장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오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한 분이 그 직장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그 직장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이 먹고 썩어 없어질 곳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겠다는 그 공직자가 근무하는 곳의 지역민들이, 자기들이 공직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봉사를 받았다는 마음으로 같은 선행과 이웃돕기에 나서게 되면, 그 지역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하느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행복으로 가득해진 그분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것이 틀림없어도 그 옳은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계산하고 옳지 않은 줄을 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작은 공동체는 마치 오아시스(천국) 같아서 다른 이들의 눈에도 보이는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으로 전파되어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미사 강론과 수요일 일반알현에서, 지속적으로 희망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속하지 않고, 언젠가 자신이 가게 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건설될 하늘나라의 문화를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걷게 될 내 소중한 발을 가지고 더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악기를 다룰 손을 남을 해하는 범죄의 수단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마주 뵈올 눈으로 온갖 미움과 더러운 행위들을 보면 안 됩니다. 황홀한 기쁨으로 넘치게 될 마음을 원망과 미움으로 채우게 된다면 그 기쁨이 들어갈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말한 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 모두 자기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소로 알고, 이 세상에 살지라도 천국을 사는 행복을 누립시다.

사랑합니다!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신동주 야고보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함께 나누며 재미있게 사는 게 행복이죠”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신동주 야고보 원주교구 평협 회장의 초대로 지난 5월 21일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다. 처음 만난 낯선 형제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신 원주교구 평협 임원들과 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신동주 회장의 본당인 원주 단구동성당

성모성월이자 부활 제6주일인 5월 21일, 원주시 치악로 단구동성당(주임 신동민 베드로 신부)을 찾았다. 널따란 마당을 지나 성전 앞에 이르자 신동주 야고보(62세) 원주평협 회장과 도호병 요셉 사무국장(55세)이 반가운 얼굴로 악수를 청했다. “오늘 우리 평협 임원들이 행사장 여기저기 들러야 할 데가 많아요. 공기 좋은데 왔으니 봄나들이 왔다고 생각하고, 저녁까지 먹고 느지막이 가요.” 굵직하면서도 담백한 목소리의 신동주 회장이 사람 좋은 웃음으로 환영해 주셨다.

원주평협 임원들과 함께 교중미사를 참례한 후 성전 마당에서 묵주를 쥐고 계시던 신 회장의 모친 김송학 안나(88세) 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푸근하고 밝고 인자함이 넘치시는 자매님이셨다. 성모님처럼 자애로우셨다.

집안의 장남인 신 회장은 모친의 인도로 강원도 횡성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원주로 이사 와서 단구동성당과 원동성당을 오가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 전 원주교구에서 구역정리를 단행하면서 단구동이 본당이 됐단다. 본당에서는 빈첸시오 활동을 오래했는데,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빈첸시오회 모임 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했다.

✣ 원주평협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우리 원주평협은 1969년 12월 창립한 ‘원주교구 사목위원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초대 회장인 장화순 베드로는 원주교구 평신도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동생이 되십니다. 원주교구 사목위원회는 1977년 3월에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평협)로 이름을 바꾸어 김용연 요한 회장이 4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제가 31대 원주교구 평협 회장입니다.

현재 부회장은 모두 네 분이신데, 엄윤호 보니파시오 수석부회장, 박종섭 힐라리오 부회장, 정기준 파비아노 부회장 이 세 분에다 이상분 율리안나 교구 여성연합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평협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원주교구 빈첸시오회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총무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사무국 봉사자들을 포함해 총 31명이 현재 원주평협의 봉사자들입니다.”

▲ 원주평협 임원진. (왼쪽부터 이대환 빈첸시오회 회장, 엄윤호 수석부회장, 신동주 회장, 도호병 사무국장)

봉사자들끼리 가족처럼 형제애 나눠

✣ 오늘 보니 아주 정겹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잘 보셨습니다. 우리 원주교구는 다른 교구에 비해 규모가 작아요. 교구에 모두 50개 성당이 있습니다. 작은 교구에서 대부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형님, 동생’ 하며 지냅니다. 여기 도호병 사무국장만 하더라도 제가 일했던 진광고등학교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도 사무국장은 ‘회장님이 제 큰형님 친구 되신다. 그래서 꼼짝 못한다.’며 웃었다.) 엄윤호 수석부회장은 반곡동성당, 도호병 사무국장은 봉산동성당, 저는 단구동성당, 이렇게 본당은 각기 다르지만 오늘처럼 행사가 있을 때는 함께 모여 미사를 보고 함께 움직이죠. 동네 사람 만나듯 자주 보니 친형제 같아요.”

✣ 원주평협 자랑 좀 더 해주세요.

“담당사제인 신동걸 바오로 신부(원주교구 복음화사목국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원주평협을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제 본당신부님이 바오로 신부님의 친동생이 되십니다. 막내 동생인 신동영 신부님도 관설동본당에서 사목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삼형제가 모두 사제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평협 지도신부님에, 본당 지도신부님에, 아주 은총을 세게 받고 있지요.(웃음).

원주평협의 또 다른 자랑이라면, 역대 회장단 모임인 ‘다니엘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모시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면 늘 해결책을 주십니다. 원주평협은 다른 어느 교구 평협 봉사자들 못지않게 인정이 많고, 아주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이동과 교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와 삼척시, 태백시, 동해시 일부와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횡성군 지역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을 관할지역으로 하는데, 지리적으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주 교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지난 1월 7일 원주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와 함께한 원주평협 신년하례회.

✣ 하반기에는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요?

"8월에 평협 임원진과 제 단체 임원들이 연수를 겸해 성지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1박 2일 성지순례 겸 연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0여 명 쯤 참여할 것 같아요. 10월에는 교구 원로사제들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고요, 12월에도 평협 및 제 단체 임원 피정이 있습니다. 평협 회장으로서 저는 오늘처럼 친교를 나누고 평협 차원의 행사와 교구 및 산하 제 단체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는 데 평협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교구장께서 부임한 후 첫 번째 중요사업인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피정의 집) 건립에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원주교구가 그동안 대규모 교육이나 피정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교구장님께서 기도학교 건립을 주문하셔서 온 신자들이 성금을 모아 내년 말까지 배론성지에 기도학교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당마다 모금액을 배정하고 가정마다 모금액을 신립해 주일마다 기도를 바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신동주 회장과 엄윤호 부회장, 도호병 사무국장은 원주교구 청년사목국 주최로 청년연합회 체육대회가 열리는 '천사들의 집'을 찾았다. 푸른 잔디밭과 신록의 나무들이 우거진 아늑한 숲속에서 체육대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작은 교구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의 크고 작은 행사 때는 이처럼 서로 이웃동네 나들이하듯 서로 참여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청년사목국 양희정 신부, 행사장을 찾은 이대환 원주교구 빈첸시오회 회장과도 인사를 시켜주셨다. 신 회장은 "원주평협의 좋은 점은 무엇보다 가족처럼 형제애를 나누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자이기 전에 형제처럼 재미있게 지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얘기도 잘되고 편해요."하며 신 회장이 평협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주일 하루의 일정이 끝나자 신동주 회장은 행사장

▲ 역대 평협 회장 모임인 다니엘회 회합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맨 오른쪽이 김지석 전 원주교구장.

원주평협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다. 평협 임원진과 제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매달 예정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해 결정한다고 했다. 최근 1~2년 사이에 원주교구에는 큰 행사가 많았다. 2015년은 원주교구 설정 50주년이었다.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평협 봉사자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했다. 지난해는 제3대 원주교구장에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이 부임, 착좌식 준비로 애를 많이 썼다고 했다.

"큰일이 있을 때 평협의 선배 회장님들과 임직원, 봉사자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알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시기에 회장인 저로서는 좋은 분들을 만나 큰 어려움 없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 등 임원진과 점심을 먹은 뒤 민족화해위원회 주관으로 '제3회 통일의 노래 평화의 울림 북한이탈주민 노래자랑'이 열리는 명륜동성당으로 향했다. 이호용 스테파노 명륜동본당 주임신부가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가 남과 북이 희망이 자라게 하고 봄이 오는,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하자 참석한 주민들도 "고향 생각이 난다."며 "오랜만에 담소도 나누고 노래자랑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내내 노랫가락과 어깨춤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무대가 펼쳐졌다.

신동주 회장은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면, 우리 민족이 흥이 많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노래만 흘러나오면 춤과 흥이 저절로 나와요." 하며 즐거워했다. 원주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섭 힐라리오 평협 부회장도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함께 격려했다.

"평협 차원에서 회장단이 이렇게 와서 참석해 주면 주최하는 분들도 많이 힘이 나죠. 오늘처럼 교구 및 산하 단체의 이런저런 행사에 동참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금방 흘러갑니다.(웃음)"

기도학교(피정의 집) 건립에 한마음 모아

✣ 원주평협은 올해 상반기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올해 원주평협은 조규만 교구장님의 사목표어인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신앙의 해'에 충실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원주교구에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원주교구의 배론성지 뒷산에 조성돼 있는데요, 가경자(可敬者) 선포 1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2일, 제천의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배론성지까지 6킬로미터 길을 400여 명의 신자들과 도보로 순례했습니다. 최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여정을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4월 26일에는 배론 최양업 신부 기념 대성당에서 성 김대건성가단이 연주하는 오라토리오 '최양업, 사랑의 사도여!'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전임 교구장 김지석 야고보 주교님 주례로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1주년 기념 미사를 성대하게 봉헌했고요. 행사는 교구 차원에서 했지만 실무 진행은 우리 평협에서 맡아서 준비했지요. 2년 전, 교구 설정 5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경험이 있어서 큰 행사도 이제 어려움이 없이 잘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을 떠나 맑은 공기를 쐬며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로 이끌었다. 용수골에는 전임 원주교구장인 김지석 주교가 은퇴해 살고 계신다. 신 회장 등 평협 임원들이 마을 어르신을 뵙듯 김 주교님을 찾아 정겹게 인사를 드린 뒤 물러나왔다.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 노래자랑 행사에 참석해 격려하고 박수치는 신동주 회장(왼쪽).

1990년부터 평협 활동하며 봉사해

✣ 그런데, 평협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일복이 있는 것 같아요. 원주교구 설정 25주년 그때가 제가 원동주교좌성당을 다닐 무렵인데, 새파란 나이 30대 중반에 뭔지도 모르고 평협 임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제 내가 조금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어느새 원주교구 설정 5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사명감이나 그런 것보다 정말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왔어요.(웃음) 회장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 평협 임원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회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죠.

옆에 와 있는 우리 백정현 청년위원장은 일당백이에요. 평협 일을 하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꽃 중의 꽃이에요. 박종섭 힐라리오 부회장은 용수골 후리사공소 회장이신데, 아침마다 경당에서 은퇴주교님이 집전하시는 미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고 있지요.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공소회장일 거예요.(웃음) 여기 우리 엄윤호 수석부회장은 진짜 저하고 찰떡궁합이에요. 너무 존경하고 좋아서 나중에 사돈을 맺기로 했는데, 글쎄 엄 부회장이 먼저 약속을 어겼어요. 어느 날 제게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믿었다가 당했어요.(웃음)"

✣ 회장님께서 평협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은 무엇인지요?

"보시다시피 이런 재미죠. 성당 다니는 사람들끼리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가며 재미있게 사는 것이죠. 사실 나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친형제 같은 동생들이, 형님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글을 쓰실 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보고 들은 것만 쓰세요.(웃음)"

원주평협 회원들과 오롯이 하루를 함께했다. 평신도와 평신도가 만나 소중하고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평신도들이 사는 행복이 이것이 아닐까.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재미있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일 것이다. "산골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원주평협으로 오세요." 신동주 회장이 큰형님다운 호탕한 웃음으로 배웅했다. 봄바람에 용수골 길가의 개양귀비 꽃들이 흔들렸다. 아름다웠다.

평신도가 뛴다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대담 · 정리
권지영 편집위원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이하 가톨릭언론인협의회로 표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같은 직종에 몸담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가톨릭언론인협의회가 그동안 활동해 온 일들을 기사를 통해 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협의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의미 있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포럼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수개월간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황진선 회장을 만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제17회 가톨릭포럼(2017.6.1)

✣ 가톨릭언론인협의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CJCK)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매스컴위원회 산하의 언론인 단체 협의체입니다. 국내외 가톨릭 언론인 단체와 제휴하여 언론을 통한 복음적, 사도적 사명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새로운 미디어를 '놀라운 기술'이라고 표현하면서, 미디어들이 세계인의 일치를 위해 공헌해야 하는 한편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이 정신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협의회는 신문 · 출판 등 페이퍼미디어 분야 현업 언론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CJPA)와 방송 · 영화 · 인터넷 · 광고 등 영상 미디어 분야 언론인들의 모임인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SIGNIS)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CJPA와 SIGNIS는 우리나라 가톨릭 조직의 체계에 따라 각 교구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CJCK는 이 두 협회의 조직을 전부 아우르는 전국 조직입니다.

CJCK는 회원 각자가 소속된 미디어가 복음적 성화와 사도직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톨릭언론인신앙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행사로는 피정 및 정기 미사 봉헌 등이 있습니다. 성지순례와 등산을 함께 하는 가톨릭언론인산악회, 가톨릭드림필앙상블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가톨릭 독서아카데미도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문제에 대한 의제 제기와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가톨릭포럼을 매년 개최합니다.

✣ 가톨릭언론인협의회의 역사와 확장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국내 최초의 가톨릭 신자 언론인들의 모임인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이 2017년 6월 10일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0.11~1965.12.8)의 영향으로 1967년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태평로 신문회관(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됐습니다. 1963년 12월 4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반포한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은 하느님의 선물인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각국의 교회가 매스컴의 선용에 관심을 갖도록 촉발된 것입니다. 초대 회장은 조선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을 거친 원로 극작가 이서구(1899~1981) 씨가 맡았습니다.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 창립총회에는 서울 지역 회원들만 참가했지만 이듬해인 1968년 6월 9일 열린 총회에는 서울 · 대구 · 부산 클럽 회원이 참가해 전국 단체의 체제를 갖췄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저널리스트클럽을 가톨릭교회 내 공식 단체로 인준하고, 그 해 4월 27일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김수환 대주교를 총재 주교로 선임했습니다. 1971년에는 전주 · 광주 · 마산 클럽이 결성되는 등 차례로 조직이 확대된 것입니다. 한국가톨릭저널리스트클럽은 1987년 한국가톨릭언론인회로 이름을 바꾼 데 이어 1992년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Catholic Journalists Council of Korea, CJCK)로 개칭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 그동안 가톨릭포럼을 통해 다뤘던 의제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지난 2000년 6월 1일 실시한 제11회 가톨릭포럼은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4일 앞두고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17회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이슈를 중심으로 주로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예컨대, 지난 2000년 '남북화해 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2001년 '학교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2003년 '새 정부의 언론정책과 새로운 취재 시스템 모색'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살에 관한 주제로 2007년 포럼을 열었고, 가난의 대물림, 공직자 윤리, 다인종과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언론사 파업사태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포럼을 열었고, 통일과 가톨릭의 역할에 대한 무거운 주제도 다뤘습니다.

✣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았는데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201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해입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백가쟁명식 진단과 처방이 분출하였습니다.

가톨릭언론인협의회는 사회적 의제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6월 1일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고민 끝에 '2017년 대한민국의 정의와 화해를 위한 종교의 역할'로 정했습니다. 정의와 화해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시의성과 변별성, 성찰과 희망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합니다.

정의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富), 권력과 기회 등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빈부의 대물림과 고착은 물론 지도층의 부패와 불의한 부(富)의 축적이 심화하면서 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 제 34기 신앙학교(2017년 봄 학기)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현대 자본주의 세계가 야기하는 삶의 불안과 위기의식이 이기심을 더 부추겨 분열 양상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장 유경촌 주교와의 만남

2017년 체제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잘못한 이의 반성과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의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통계청 조사에서 종교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의 대중법어의 핵심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모르게 남을 도웁시다'라고 합니다. 모두 정의와 화해와 공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신앙은 죽음까지 불사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선택이다.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리라'는 희망에 차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이 순교다.

▲ 강완숙 골롬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Ⅱ.순교 역사 속 평신도

• 가톨릭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기에, 세상 너머에 눈을 두고 살기에…. 세상과의 불화가 낳은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순교로 이룩한 신앙의 역설은 바로 '세상'에 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세상임에도 주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세상. 그런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순교 역사는 들려준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신앙은 죽음까지 불사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선택이다.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리라'는 희망에 차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이 순교다.

•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님에게서 멀어져, 당신의 숨결조차 느끼기 힘든 세상, 아귀다툼 속에 당신의 거룩함이 사그라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순교의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 어느새 그 피가 내를 이루고 강을 넘쳐 바다로 흘러든다.

•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최초의 박해라고 할 수 있는 1791년 신해박해(辛亥迫害)는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이 맞은 서설(瑞雪)이다.

이를 필두로 1801년 신유박해, 1815년 을해박해, 1833년 정해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 1879년 기묘박해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순교자의 피가 어려 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다. 하나뿐인 생명까지 내어놓지 않고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랑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평신도의 걸음걸음에서 한국 교회의 오늘을 이룬 순교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3 셋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I
한국 교회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1759~1791) 복자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로 꼽히는 윤지충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품행이 단정해 인근 마을에서까지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이다. 스물넷 되던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해 명성이 더 높아졌다.

이듬해 1784년 겨울 상경이 그의 인생행로를 바꿔놓았다. 천주교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접한 그는 명례동(明禮洞, 현재 서울 명동)으로 김범우(토마스)를 찾아갔다. 김범우의 집에서 나온 그의 손에는 「천주실의(天主實義)」와 「칠극(七克)」이 들려있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윤지충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 일어나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갖던 이승훈을 비롯, 정약전(丁若銓)·약종(若鍾)·약용(若鏞) 형제, 권일신 부자 등 10여 명이 체포돼 형조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윤지충은 가지고 있던 교리서들을 모두 불태우거나 물로 씻어버렸다.

주님은 다시 그를 부르셨다. 1786년 고종사촌인 정약전이 그에게 천주교 교리를 전했다. 이듬해 그는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아 드디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일가가 있던 전라도 진산으로 돌아온 윤지충은 어머니와 동생 윤지헌(프란치스코)은 물론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외사촌인 권상연(야고보)에게 신앙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도 윤지충이었다.

1790년 윤유일(바오로)이 중국에서 가져온 북경교구장 구베아(A. Gouvea, 중국명 湯士選 · 1751~1808) 주교의 사목서한이 조선 신자들에게 전해졌다. 이 서한에는 조상 제사를 금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때 많은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윤지충은 교회의 뜻을 충실히 따라 신주를 불태우고 신주를 넣었던 빈 궤만 사당에 세워 놓았다. 그만큼 윤지충은 가톨릭 신앙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791년 음력 5월 그의 어머니 권씨 부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윤지충(바오로)은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과 신앙에 따라 외사촌 권상연과 장례를 치르지 않고 모친의 신주를 불태웠다. 당시로서는 사대부가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다는 것은 웬만한 각오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다는 것은 윤지충의 신앙이 매우 확고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저명한 선비가 신주를 불태웠다는 소문은 조선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다. 더구나 이 사건은 조선 사회가 겪어보지 못했던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과 조선 사회를 유지해 오던 성리학적 질서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윤지충에 대한 소문을 접한 진산군수는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하도록 명했다. 두 사람은 이미 피신을 했지만 윤지충의 삼촌이 대신 진산군 관아에 잡혀 들어가게 되자 1791년 10월 26일 진산 관아에 자진 출두했다. 10월 29일까지 진산군수에게 몇 차례 신문을 받은 후, 전주의 전라 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전라 감영에 압송된 윤지충과 권상연은 전라도 관찰사 정민시의 심문을 받는다.

"천주(天主)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됩니다.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목주(木主)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죽은 이의 집에 남아 있을 수 없고 또 남아 있어야 할 영혼도 없습니다. 이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증명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패 나무 조

▲ 124위 복자 전체도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각 하나를 모셔두고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며 음식을 바치는 것은 부모님께 거짓된 도리로써 효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윤지충이 전라 감영에서 고문을 받으며 진술한 내용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다. 그의 삶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왕이나 부모가 아니라 '천주(天主)'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위패를 거리낌 없이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이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윤지충은 "형문을 당할 때,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터지면서도 찡그리거나 신음하는 기색을 얼굴이나 말에 보이지 않았고, 말끝마다 천주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윤지충은 권상연과 함께 1791년 11월 8일 전주 감영에서 순교의 관을 쓴다. 윤지충의 순교는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천주교는 단순한 이단 학문이 아니라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서 볼 때 윤지충이 신주를 불사르는 행위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상 변화를 야기하는 부싯돌이 되었다. 윤지충과 같은 평신도들의 과감한 도전이 있었기에 조선 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이다.

4 넷째 마당 – 순교로 믿음의 씨 뿌리다 Ⅱ

한국 교회 첫 여성 회장 강완숙 (골롬바, 1760~1801)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여섯 차례에 걸친 혹독한 형벌조차 아무 소용이 없자 그를 고문하던 나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여성 회장 강완숙(골롬바)은 그렇게 교회사에 아로새겨졌다. 그의 굳은 신앙심은 박해자들의 기마저 꺾어버릴 정도였다.

"천주교에 깊이 빠져 이를 널리 전파하였고, 6년 동안 주문모를 숨겨주면서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하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강완숙에게 붙은 죄목이었다. 이에 대한 강완숙의 최후 진술은 이러했다.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천당)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1794년 12월 23일 조선 입국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주문모(야고보, 周文謨) 신부. 그를 박해와 죽음의 손아귀에서 지켜내는 일이 여성인 강완숙에게 지워진 십자가였다.

숱한 어려움 속에 이 땅에 들어온 주문모 신부는 서울에 들어와, 최인길(마티아)의 집에 숨어서 1795년 6월까지 전교에 힘썼다. 그러나 한영익(韓永益)의 밀고로 체포령이 내려지자, 주 신부는 강완숙의 집에 피신해 6년간 숨어 지내며 전교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강완숙이 없었더라면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한순간에 말라버렸을지 모른다.

주 신부가 자신의 집으로 피신해 오자 그는 주 신부를 곳간에 숨겼다. 밖에서 볼 때는 평범한 광이었으나 안쪽에 숙식이 가능한 자리와 처소를 꾸며 주 신부가 숨어 지내게 했다. 남자들도 잡히면 죽을까봐 몸을 사리는 마당에 체포령이 내려진 신부를, 그것도 여인의 신분으로 숨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위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주 신부를 보살폈다. 하루 세끼 음식을 대접하는 것 외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았다. 문밖에는 나졸들이 주 신부를 잡기 위해 잔뜩 독이 올라 있었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숨어 지내기만 할 수 없었다.

주 신부는 강완숙과 자주 상의하여 사목 계획을 세웠다. 변장을 하고 강완숙을 따라 거리로 나오자 예상했던 것보다 검문검색이 심했다. 그때마다 강완숙의 기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대담하게 주 신부를 수행해 지방을 순회하는 사제의 사목을 돕는 일도 강완숙의 몫이었다. 전국을 돌며 사목활동을 마친 주 신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무사히 서울로 숨어들어 올 수 있었던 것도 강완숙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완숙의 수완과 활약에 힘입어 주 신부 입국 당시 4,000명에 불과하던 신자 수가 5년 만에 1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중에는 머슴, 하녀들뿐 아니라 지체 높은 양반 부녀자들도 있었다. 왕실의 친척인 송 마리아와 며느리 신 마리아에게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받도록 주선한 것도 그였다. 처녀 교우들이 많아지자 '동정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윤점혜 아가타가 동정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곳도 강완숙의 집이었다.

강완숙은 주 신부를 모시면서 비밀 유지를 위해 이사를 여러 차례 하는가 하면 특히 신부를 찾아오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늘 경계하며 신경을 썼다.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가 승하하자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강완숙이 주 신부를 숨겨온 사실을 알아낸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지만 이미 피신시킨 뒤였다. 포도청에 잡혀온 그는 온갖 고문을 받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강완숙은 신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함께 갇혀 있는 동료들을 권면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동료들과 함께 형장인 서소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도 강완숙은 다른 4명의 여교우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였다. 즐거운 빛으로 제일 먼저 목숨을 바치니, 그때 나이 41세였다.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여규태 회장】

평신도가 똑바로 서야

대담 · 정리
김문태 편집위원

2018년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설립 5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한편,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덩굴장미가 활짝 핀 지난 5월 31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 자리한 의령 여씨 대종회 사무실에서 여규태 요셉 회장을 만났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제13대와 제14대 평협 회장을 역임하였다. 여든넷이라는 나이에도 젊은이 못지않은 다부진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

▲ 여규태 회장.

✣ "세례는 26살 때 받았습니다. 당시 가정교사로 중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댁의 식구들이 교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량리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혼배도 그 성당에서 했고요. 나중에 혜화동성당으로 옮기고 나서 교회에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하게 됐지요."

고향이 경북 봉화인 여규태 회장은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하였다. 운동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축구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유도로 바꾸었다. 영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용인대학교에 3회로 입학하여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1958년에 용인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유도 4단을 따고, 2004년에 대한유도회 공인 9단으로 승단하였다. 그간 그는 서울시 유도 시설도장협의회장, 한국 유도고단자회장, 서울시 유도회장, 대한 유도회 부회장, 한국유도원 이사장, 대한 유도회 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 유도인으로 살아왔다. 또한 용인대학교 장학재단 이사장과 총동문회장을 맡아 후배들을 양성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아시아 무에타이연맹 부회장과 대한 무에타이협회 회장도 맡아 체육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의령 여씨 29대손으로 대종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를 만난 사무실에 '대한무에타이협회' 간판이 걸린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그러한 공로로 2006년에 용인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에 대한 체육회 최우수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여규태 회장은 혜화동성당에 다니면서 박순재 몬시뇰, 염수의 신부, 나원균 신부가 재임하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사목회장을 하였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97년에 『백동 70년사』를 편찬한 일이었다. 백동성당으로 불린 혜화동성당은 서울에서 명동 종현성당과 중림동 약현성당에 이어 세 번째로 설립된 본

▲ 유도인으로 살아온 여 회장. 공인 9단이다.

당이니만큼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다음으로는 혜화동성당 소속의 포천 묘원을 재정비한 일이었다. 장면 박사가 영면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289,516평의 묘원에 도로와 주차장을 정비하고, 제대를 마련한 것이 보람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한국가톨릭경제인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듬해인 2000년에 한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회장도 겸임하였다.

✣ "평협 회장이 되고 나서 '똑바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박정훈 전 평협 회장이 펼쳤던 '내 탓이오 운동'처럼 교회와 사회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보고 공공기관에서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운동의 순수성을 위해 거절했지요."

여규태 회장은 전임 류덕희 평협 회장이 펼친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기 위하여 펼친 '가을걷이 도농 한마당잔치'를 재임 기간 중 매년 개최하였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한 해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는 축제의 장을 서울시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열었던 것이다. 도농 간의 따뜻한 만남의 장이자 창조질서 보존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그는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하나 되어 생명의 연대를 이룰 때, 하느님이 창조한 원래 모습대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그는 남북한 교회의 교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남북한의 유화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2001년 9월에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에 남측 대표단 337명이 참가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방북단을 파견하여 민간 차원의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문을 열었다. 당시 주교회의 사무총장이던 김종수 신부를 단장으로 한 천주교를 비롯한 7대 종단과 민족화해협의회, 통일연대 등으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2002년 8·15 서울 행사에 북측 대표단이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여규태 회장은 당시 장충성당을 방문하여 북한 신자들과 만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이어 2003년 8월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에 7대 종단을 비롯한 민간단체 대표단 341명이 재차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공동행사를 통한 민족의 평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여규태 회장이 재임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것은 2001년 9월에 선포식을 한 '똑바로 운동'이었다. 그는 세기말 세기초가 안고 있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와 비윤리성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성이 무뎌진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똑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의식개혁운동이자 회개운동을 펼쳤던 것이다. '똑바로 운동'은 빛의 자녀로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는 삶, 하느님이 보시기에 올곧고 떳떳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 4백만 평신도는 물론 뜻을 함께하는 선의의 국민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 여규태 회장, 고 백남익 몬시뇰, 정진석 추기경, 류덕희 회장, 최홍준 회장(왼쪽부터)

'똑바로 운동'은 비단 평신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성직자 역시 강론 중에 정치에 대한 사견을 밝히지 말고, 타종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 실천을 다짐하는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많은 평신도들이 '똑바로 운동'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붙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였다. 한번은 한마음수련원에 가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 스티커를 붙이느라 다소 소란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 두봉 주교가 나와 사제 연수중이라는 말을 건네 무안해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해 말 두봉 주교의 따뜻한 사과와 격려의 말이 담긴 성탄카드를 받고 감동하였던 일이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였다.

✣ **"앞으로 평협의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몇몇 교구에서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쓰고 있거든요. 평신도를 대표하는 협의회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만 합니다."**

여규태 회장은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달변이라 느껴질 정도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하지만 교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을 아꼈다. 민감한 질문에는 '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말을 돌리곤 하였다. 평신도로서 교회의 중요한 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였기에 하고 싶은 말이 많으리라는 예상을 깼다.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할 말을 다하고 살 수 없지 않느냐?'는 말에서 그의 심중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예외였다. 평협의 명칭에 있어서는 힘주어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이분화되어 있는 평협의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금도 서울대교구, 대구대교구, 의정부교구, 대전교구, 전주교구는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교구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라고 호칭하고 있다. '단체'가 붙은 교구에서는 평협에 신심, 운동, 직능, 동호인 단체만 등록되어 있고, 각 본당의 사목협의회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교구의 각 단체장들은 평협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목회장들은 평협 활동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구의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평협이 본당의 평신도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여규태 회장은 앞으로 평협이 발전하고, 나아가 한국 천주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평협의 위상이 오늘의 평신도가 똑바로 서기 위한 발판이라 여기는 듯하였다.

나눔

평신도 연구

'하느님의 백성'과 21세기 교회

황경훈 바오로 우리신학연구소장

'공의회 학교'라는 이름 아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공부하는 한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공의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의 원고대로 발표하는 강의가 아니라 사회자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일종의 대담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그 중 평신도 호칭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신도'라는 호칭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여전히 '평신도'라고 쓰는데, 꼭 필요하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볼 때도 '평신도'보다는 신도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이라는 데서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말이지요. 하긴 평신도의 정체성, 지위와 역할에 대해 거의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한국의 첫 본격 평신도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도론』을 쓴 양한모 선생님이 그 책의 제목을 평신도론이 아니고 신도론으로 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 신도인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른 어떤 공의회보다도 교회와 세상과 관련해 수많은 보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기 교부시대 같은 '좋은 시절'을 지나고서는 중세적 유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인지 비밀주의적이고 권위적이며 폐쇄집단적이고 비난적인 언어와 태도를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따르고 지켜야 할 전통인양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오순절'이라고 부를 정도로 표면이 아니라 저 심층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개혁적인 방향으로, 곧 초기 교부시대에 보이던 친교와 대화, 설득과 초대, 동의, 공동선과 같은 방향으로의 전환은, 이를테면 '교회가 절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같은 교회이지만 그 변화야말로 과연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석 같은 말들 중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이 '하느님의 백성'을 뽑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성서나 교회사에서 볼 때 오랜 기원을 갖고 있는 용어지만 거의 사어(死語)가 되다시피 하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와서야 비로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친교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되살아났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N포세대', '헬조선'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불의와 불평등을 상징하는 단어들, 특히 극단적 양극화를 지칭하는 이러한 유행어들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그렇게 대하는 진정한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성사'(sacrament)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며, '빛과 소금'이 되

어, 썩어가는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대가, 이 사회가 종교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 '민중은 개, 돼지'라는 어느 한심한 교육자가 했다는 말처럼 금수저의 삶보다도 결코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살 만한 가치와 희망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교회의 현실은 사회가 보여주는 불의와 불평등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 문제나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별은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도 더 뒤떨어져 보입니다. 교회헌장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백성 같은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는 교회론도 있지만, 교계와 교도권을 강조하는 대목도 여러 군데여서, 누가 어떤 부분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교회헌장에는 평신도의 보편 사제직과 성직자의 특수 또는 직무 사제직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본질에서의 차이"(10항)가 있다고 적시함으로써 성직자와 평신도를 '본질적'(essential)으로 구분해 내고 있습니다. 위계적인 한국 천주교회 풍토에서 이 대목은 많은 경우 성직자에게는 '평신도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십상이고, 그것의 문화가 차이가 아닌 차별로 현실화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신도인 제 입장에서 이 대목을 볼라치면 그 본질적 차이는 '기능적'이며 '유비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라면, '본질에서 다르다'는 표현은 서구인들의 철학적 세계관이 그렇듯이 실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올바른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면, 그리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체성사 때 우리 모두가 성체성사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리스도라면, 팔이 다리보고 '나는 너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신도'와 '평신도' 얘기를 하다가 멀리 돌아왔네요. 신도라는 표현도 좋지만 평신도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서 갖는 의미는 '전문성이 없는'(lay)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평등'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지니고 또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그 평등의 공동체로서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대망한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에 더욱더 현 시대에 필요한 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 바로 자신을 제단에 바친 그 사랑은 '모든 이'를 고루 사랑하는 평등의 정신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교구를 이번 6월에 사목방문 하는데, 고인이 된 마촐라리 신부와 밀라니 신부의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평화주의자인 두 신부는 평소 교황청과 이탈리아 교계와 관계가 극히 안 좋았는데, 이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탈리아 교회에 주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곧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내치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제 평신도를 사목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양떼'로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1세기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요즘 기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갈 길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목소리 없는 우주 피조물의 고통을 섬세하게 듣는 것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백성'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의논하며, 성찰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에서 나오는 힘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등한 공동의 논의와 합의와 실천의 과정에서야말로 성령은 분명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임을 믿고 또 믿습니다.

공의회 강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2)

이창훈 알폰소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장,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이 글은 '가톨릭평화신문'과 월간 '레지오 마리애'에 연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 교령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네 번에 나누어 싣는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변화

1)전례 쇄신과 하느님 말씀 강조

가장 먼저 이뤄진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례 분야였다. 공의회의 첫 결실인 전례헌장이 반포되고(1963년 12월 4일) 난 직후 1964년 4월 한국 주교회의는 전례쇄신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촉진이라는 전례헌장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산하에 전례위원회를 설치했다.

전례위원회의 첫 결실은 한국어 미사였다. 주교회의는 공의회 기간인 1964년 10월 로마에서 회의를 열어 1965년 1월 1일부터 자비송, 대영광송, 독서, 복음, 신경, 거룩하시다 등 신자들이 함께 하는 부분은 한국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미사통상문'으로 지칭되는 우리말 미사는 이후 로마(교황청)의 미사경본 개정 작업에 따른 우리말 번역 작업과 수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됐다.

공의회 이전에는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고 사제는 성찬 전례 때 신자들을 등지고 미사를 봉헌했다. 신자들은 사제 등을 바라보며 미사 전례에 '참석'했다. 하지만 공의회 이후 사제는 지금처럼 제대를 중심에 두고 신자들을 바라보며 미사를 거행하기 시작했다. 제대가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제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중심에 모신다는 의미를 지닌다. 신자 석과 제단 사이의 난간이 치워진 것, 서서 손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 성당에서 제대를 가로지를 때 절을 하며 제대를 향해 예를 표시하는 것, 여성이 미사 복사를 서거나 평신도에게 예외적으로 성체 분배권을 수여하는 것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에 따른 변화들이다.

전례력 개혁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쇄신에 따라 이뤄진 변화 가운데 하나다. 교회가 예수 성탄과 예수 부활을 두 축으로 해서 대림시기를 시작으로 성탄시기 – 연중시기 – 사순시기 – 부활시기 – 연중시기로 1년을 전례주년으로 지낸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성인들의 축일이 중심이

었다. 공의회는 전례 쇄신을 통해 전례주년의 중심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1969년 지금과 같은 전례력이 마련됐다.

전례 쇄신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느님 말씀 곧 성경에 관한 강조다.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에서 성찬 전례가 강조됐고 말씀 전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다. 이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이 "오직 성경만으로!"를 주장한 데 맞서 가톨릭교회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전(聖傳)과 함께 성사(聖事)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을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의회는 전례헌장을 통해 하느님 말씀인 성경이 미사 전례에서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활용될 것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미사에서 말씀 전례도 성찬 전례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공의회는 계시헌장을 통해 하느님 말씀에 맛들일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 번역은 물론 성경 읽기와 성경 보급, 성경 연구 사도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에서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일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사도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교회의 산하에 성서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공의회가 끝난 후인 1965년이었다.

전례 쇄신 운동과 성경 연구 및 보급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특히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운동들이 운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변화와 쇄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2)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져다 준 획기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공의회 이전의 교회는 한마디로 엄격한 위계 중심의 교계제도로 이뤄진 교회라고 할 수 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고, 그 아래에는 주교들이, 주교들 아래에는 신부들이, 아래에는 하급 성직자인 부제들이 있다. 평신도들은 이 위계 중심의 교계제도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교회가 모두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특히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교회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교회헌장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회는 교회를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했다. 세례로 하느님 자녀가 된 신자들은 비록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성직자들과 본질적 차이가 있지만(평신도의 보편 사제직과 성직자의 직무 사제직) 하느님 백성으로서 똑같은 품위와 존엄을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회를 친교 공동체로 보는 '친교의 교회'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위계 중심의 제도 교회에서 친교 공동체로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대단히 크게 강조되는 소공동체 운동은 바로 공의회가 제시하는 친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구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위계 중심의 제도 교회가 틀렸다거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계 조직이 군림하는 조직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 조직이라는 점이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 친교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새로운 교회관은 교회 통치 혹은 운영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다줬다. 우선 주교단 단체성 혹은 주교단성(主教團性)을 들 수 있다. 주교단성이란 주교들이 교황을 단장으로 하나의 주교단을 이뤄 보편 교회(전 세계 교회)에 대해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주교단 단체성을 통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하게 행사된다.

친교 교회관에 바탕을 둔 주교단 단체성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 교회와 사회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교황을 자문하는 상설기구인 주교 시노드(주교 대의원회의)다. 주교 시노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있었지만 보편 교회의 교회법적 기구로서 상설화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자문기구 성격을 지니지만 주교 시노드가 교회법적 기구로 존재하게 된 것은 친교 교회관에 바탕을 둔 주교단 단체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교황은 주교들 의견을 더욱 존중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친교 교회관을 반영하는 교회법적 기구로 오래 전부터 지역 교회 차원에서 지역 주교회의와 관구 공의회 등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별 교회인 교구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는 교회법적 기구들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이 교구 사제평의회와 교구 사목평의회다.

개별 교회인 교구의 최고 목자인 교구장 주교는 교구 사제들을 대표하는 사제평의회와, 사제뿐 아니라 수도자와 평신도 등 교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구 사목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사목평의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다.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는 물론 교구장 자문기구다. 따라서 교구장은 자신이 원하면 굳이 사제평의회와 사목평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쇄신 정신 특히 친교 교회관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본당 사목협의회(사목평의회) 역시 친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관을 반영하는 교회법적 기구다. 교구장 주교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마다 설치해야 한다. 현행 「교회법전」이 규정하는 본당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 신부의 자문기구이지만 본당 신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교구 사목평의회나 본당 사목평의회가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기구라는 사실이다. 평신도들이 교회 운영 또는 사목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은 것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져다준 획기적 변화다. 친교 교회관을 바탕으로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를 사목 대상으로 여긴 이전과는 달리 사목 협력자로, 교회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주체로 이해했다. 신학자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평신도를 위한 공의회'라고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 친교 공동체인 교회. 여기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 목자인 주교와 그 협조자인 신부들과 마찬가지로 세례와 견진성사로 하느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서 작용하신다는 것을 공의회는 다시 확인한 것이다(신앙 감각, 12항).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로 이뤄진 하느님 백성인 교회다. 신자들은 목자를 존경하며 따르고, 목자는 신자 공동체 안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친교 공동체인 교회 모습이다.

3)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❶ 교회 일치

교황 요한 23세(재위 1958~1963)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소집을 발표할 때부터 새 공의회가 일치를 위한 공의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교회 일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핵심 사안이었다.

후임 교황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는 1964년 1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정교회 수석 총대주교인 아테나고라스 1세와 역사적 회동을 한 데 이어 그해 9월 13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에 탈취해 보관하고 있던 사도 성 안드레아 유해를 그리스 파트라이에 반환했다. 성 안드레아 사도는 그리스 정교회 수호성인이어서, 교황은 이를 통해 정교회와 화합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교황은 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1054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과의 상호 파문을 911년 만에 철회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공의회가 끝난 후 바오로 6세는 1967년 7월 터키를 방문, 이스탄불에서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와 다시 만났고, 그해 12월에는 아테나고라스 1세 총대주교가 처음으로 바티칸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교황은 1966년 영국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를 만났고, 이 만남을 계기로 성공회와 가톨릭교회의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위원회(ARCIC)가 설립된다. 바오로 6세는 1969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본부를 찾았고, 1973년에는 로마에서 칼케돈 공의회(451년) 때 갈라져 나간 고대 동방교회인 이집트 콥트 교회 총대주교 쉐누다 3세와 그리스도 신앙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교황은 또 공의회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했던 그리스도교 일치 사무국을 공의회가 끝난 후에는 교황청 상설기구로 설치해 일치 문제를 관장하게 한다. 이 일치 사무국은 1988년 교황청 기구 개편과 함께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약칭 일치평의회)로 개편돼 오늘에 이른다.

보편 교회 차원의 일치 노력은 요한 바오로 2세(재위 1978~2005) 교황 때 더욱 활발하게 펼쳐졌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특히 정교회와 일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9년에는 이스탄불을 방문, 디미트리오스 1세 총대주교를 만났고, 이를 계기로 가톨릭-정교회 합동 위원회가 구성됐다.

교황은 또 1987년에는 디미트리오스 1세를 바티칸으로 초청한 데 이어 1995년 그 후임 바르톨로메오 1세 총대주교를 초청했다. 루마니아(1999)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아르메니아(2001)를 방문했을 때나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시나이, 예루살렘, 시리아, 그리스까지 성경의 세계를 순례했을 때 정교회와 고대 동방교회들과 일치도 주요 사안이었다. 특히 1995년에 발표한 회칙 「하나되게 하소서」는 교회 일치를 위한 교황의 염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문헌이다.

가톨릭교회와 정교회는 1978년 이후 해마다 안드레아 사도 축일(11월 30일)에는 가톨릭 대표단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가 있는 이스탄불을 방문하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축일(6월 29일)에는 정교회 대표단이 로마를 방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교회임을 확인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후 갈라져 나간 개신교 교회들과의 일치 노력 역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교황청 일치평의회는 신앙교리성 등 유관 부서와 협조하면서 정교회와 고대 동방교회들뿐 아니라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복음주의교회 등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과 일치를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루터교와 함께 '신앙에 의한 의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발표, 16세기 종교 분열의 한 원인이 된 의화 교리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이 공동 선언은 2006년 7월 서울에서 가톨릭교회와 세계감리교협의회 그리고 루터교 세계연맹의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일치 노력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정교회 일부 교회들은 특히 동유럽 지역에서 가톨릭교회가 정교회 신자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며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성공회와의 일치 노력은 성공회에서 여성 사제 서품을 인정한 것이 암초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갈라진 형제들과 일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❷ 종교간 대화

종교간 대화 노력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됐다.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의회가 진행 중인 1964년 6월 타종교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비그리스도교 사무국을 설치했다. 공의회가 비그리스도교 선언 「우리 시대」(1965년 10월 28일)를 발표한 후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타종교와 대화를 추진해 온 사무국은 1988년 교황청 기구개편과 함께 종교간대화평의회로 개편했다.

종교간대화평의회는 보편 교회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타종교인들과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증진한다.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이 해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의 축제일에 경축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6년 아시시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지도자 모임을 열었고, 아시시 25주년을 맞아 2011년 10월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 아시시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지도자 기도 모임을 열었다.

》 다음 호에 계속

이야기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 1

‘로마시 우르바노 8세로 16번지’

박정일 미카엘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주교

필자 박정일 주교

지난 호까지 「평신도」지의 호의로 나의 ‘북한 생활 체험기’를 함께 연재하였다. 나는 이 체험기에서 공산치하의 북한 국민의 생활상과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는지 직접적인 나의 체험을 진솔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곁들여서, 6·25 동란 시의 나의 월남(나는 북한의 평남 평원군 태생이다) 피난기와 아울러 피난 신학교 (제주도와 부산 영도) 생활 체험기 등도 기술하였다. 그런데 나는 부산 영도 신학교에서 1년을 수학하던 중 로마 우르바노 신학교(Collegio Urbano)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는 북한의 덕원 신학교와 제주와 부산 영도의 피난 신학교에서 약 1년밖에 신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셈이다. 나는 로마에서 신학교 과정(철학 3년, 신학 4년)을 처음부터 시작하여 1958년에 사제품을 받고 사회학 2년을 이수한 후 1962년 9월에 귀국하였다. 나는 근현대의 파란 많던 한국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 좋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헤쳐 나올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평신도」지에 연재한 ‘북한 생활 체험기’가 인연이 되어 이제는 또 한 번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라는 요청을 받고 연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연재의 청을 받고 처음에는 다소 수락하기를 망설였다. 왜냐하면, 신학교 생활이야 보통으로 신자들이 알고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재를 수락하게 된 동기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우르바노 신학교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반 신학교(교구나 수도회가 자기 교구나 수도회를 위한 사제 양성을 위해 설립한 신학교)와는 다른 성격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르바노 신학교는 교구나 수도회 신학교와는 달리 교황청이 직접 ‘교황께서,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 전교지방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회의 중심지인 로마에 설립한 신학교다.’) 따라서 우르바노 신학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세계 복음 선교 사명과 직결되는 신학교라고 할 수 있다. 우르바노 신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27년, 교회의 복음 선포 사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우르바노 8세 교황께서 전교지방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세우신 특수 신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이 연재를 읽을 독자 여러분이 교회의 선교 사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꺼이 집필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르바노 신학교의 소재지 주소는 우르바노 신학교를 설립하신 우르바노 8세 교황을 기념하여 ‘로마시 우르바노 8세로 16번지’(Via Urbano VIII, 16)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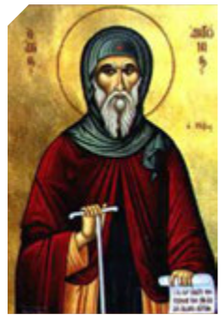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현하시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 19-20; 마르 16, 14-18; 요한 20, 19-23) 하시며 세상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사명을 부여하셨고, 또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도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 8-9)라고 하시며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사도들을 주추로 해 세우신 당신 교회에 부여하신 복음 선포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복음 선포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근본 사명인 것이다.

사도들이 주님의 이 중대한 복음 선포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 힘을 얻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을 뿐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유다 지도자들의 협박과 박해를 불구하고 용감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마침내 장렬히 순교까지 하였다.

초대 교회 신자들의 복음 선포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복음 선포에 전심하였다고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켜 신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사도 2, 42-47.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수도회들의 출현과 복음 선포

그리스도교 수도생활의 시조는 성 안토니오(251-357)이다. 그는 이집트에서 혼자서 은수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완덕을 지향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한 개인적 은둔 수도생활이 차츰 공동적 은둔생활로 변천하면서 수도생활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 성안토니오 은수자

서방 교회의 수도생활 시조는 성 베네딕토(480-547)이다. 성인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수도생활의 표본이 되고 있는 유명한 「수도규칙」을 만들었다. 베네딕토회 수도자들은 한 곳에 정주(定住)하여 생활하며 청빈, 정결, 순명의 3대 서약을 하고 기도, 노동, 성경공부에 정진하였다.

그 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각각 다른 목적과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회들이 생겨났다. 여러 종류의 봉쇄 수도회와 활동 수도회 등이 그것이다. 수도회들은 각각 고유한 목적과 영성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복음 선포를 수행하였다. 그러한 여러 수도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특별

히 복음 선포에 주력한 수도회가 예수회다.

예수회는 16세기 중반 1534년경 파리대학 신학부 학생 이냐시오 로욜라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등 젊은 7명의 학생들이 의기투합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하며 복음 선포와 외교인 회두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교황의 명을 받들어 청빈과 정결의 생활을 서약함으로 태동되었다. 1539년 이냐시오 로욜라는 로마에서 회헌 초안을 작성하였고, 1540년 9월 27일 바오로 3세 교황이 이를 윤허함으로써 예수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예수회는 교구에 소속되지 않는 교황청 직속 수도단체다. 그리고 교황의 명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 예수회의 특징이다.

또한 예수회는 고등교육을 중요시하고 담당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중세기인 창설 당시부터 귀족과 군주 등 지도계급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엘리트 교육에 치중하였다. 그러한 전통은 오늘도 대학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유명한 로욜라 대학들이나 서울의 서강대학교, 일본 도쿄의 상지대학교 등이 예수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명문 대학들이다.

예수회는 인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중에 예수회 회원 마태오 리치 신부(1522-1610)가 1582년 중국에 입국하여 서양문물을 소개하고 유창한 중국어 실력으로 천주교 교리서 「천주실의(天主實義)」를 저술하여 중국과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 선조 남인 학자들이 이 책을 읽고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북경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을 만나 교리를 배우고 이승훈이 베드로의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한국의 첫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황청 포교성성 설립

신자들의 선교열과 수도회들의 선교활동에 발맞추어 가톨릭 신앙의 확산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교황청 안에 전 세계 복음 선포를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포교성성(布教聖省 = 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이 그것이다. 포교성성은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의 교서 《Inscrutabili Divinae = '무량하신 하느님의'》로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의 비그리스도교 국가와 민족들의 복음화를 총괄하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책무를 담당한다. 그러한 무거운 책무와 권위를 한 몸에 지닌 포교성성 장관 추기경을 사람들은 가끔 '붉은 교황'이라고 부른다.

▲ 그레고리오 15세 교황

교회 안의 예수회 중요성에 비추어 사람들은 예수회 총장 신부를 '**검은 교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참고**: 교황은 흰색, 주교와 추기경은 붉은색, 사제는 검은색 **주게토***를 쓴다.

*주게토zucchetto=가톨릭 성직자가 쓰는 반구형 모자, 속칭 빵떡 모자

그레고리오 15세 교황을 이은 **우르바노 8세 교황**께서 전임 교황님의 뜻을 이어 비 가톨릭 국가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러한 나라들(소위 전교지방)의 신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신학교를 교황청이 가까운 로마에 설립하였다. 이 신학교가 바로 설립자 우르바노 8세 교황의 이름 딴 우르바노 신학교(Collegio Urbano)이며, 필자가 다니고 사제가 된 신학교이다.

▲ 우르바노 8세 교황

》 다음 호에 계속

특강

교황 프란치스코와 소공동체 1

이병호 빈첸시오 원로사목자, 전 전주교구장 주교

사진 제공: 도서출판 나무와 숲,「헬로 프란치스코」

이 글은 4월 7~8일 전주교구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연 2017년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병호 주교의 특강 내용으로 두 번에 나누어 싣는다.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직자나 수도자뿐 아니라, 평신도 역시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을 수행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평신도의 사제직에 관해서 공의회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기도, 사도적 활동,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적 노동, 몸과 마음의 휴식, 이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하고, 특히 삶에 따른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그것이 영적 제물이 되어 미사 때 주님의 몸에 보태져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고 말합니다(교회헌장 34항 참조).

평신도의 예언자직에 관해서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사도 2,17-18; 묵시 19,10 참조)을 바탕으로, 생활의 증거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교회헌장 35항).

마지막으로 평신도의 왕직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높이 세워지신 그리스도(필립 2,8-9)께서 자신이 받은 그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신 데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죄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고, 왕다운 자유를 누리며,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주의 섭리와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인간의 노동과 기술, 시민적 문화를 활용하여 창조물을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상의 참된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왕직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공의회 이후, 교회는 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남미의 기초 공동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소공동체입니다. 남미에서는 주로 정치 및 경제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신자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기초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성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대함으로써 개인의 성화는 물론 사회구조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사목적 이유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 특히 문맹인들까지 그림 등 최소한의 이해 도구만으로도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얻은 빛과 힘으로 무장하여 밖에 나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92년에 소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공의회 폐막 50주년을 얼마 앞두고 등장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3대 직무를 더욱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교황 권고서 「복음의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의 최고 목자로 선출되기 4일 전, 교황을 뽑기 위한 비밀회의인 콘클라베에서 동료 추기경들을 앞에 두고 한 발언이 이미 선교-복음화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확실히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기쁨」의 기본 정신이 씨앗처럼 거기에 요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동료 추기경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때의 발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❶. 복음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뛰쳐나갈 마음과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떨치고 나가 저 외곽으로, 변두리로 나가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존적 의미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고통, 불의, 무지, 종교에 대한 무관심, 현대 지성계의 흐름, 모든 형태의 비참상 등 이 모든 신비를 향해 뛰어들어야 합니다.

❷.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 자신으로부터 뛰쳐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병이 들고 맙니다. (복음에 나오는 망가진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 기관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악들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와, 일종의 신학적 자기도취에 궁극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묵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서에는 분명히 그분께서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안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려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시는 시대를 연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고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❸. 교회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태양에게서 빛을 받아 그것을 반영할 뿐인: 역자의 덧붙임) 달의 신비이기를 그치고, 대단히 심각한 악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영적 세속성이라는 악입니다. (앙리 드 뤼박에 따르면, 이것은 교회에 닥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재앙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간단히 줄여서 표현하자면, 교회에 관한 이미지는 둘입니다. 먼저, 자신으로부터 나와 복음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충실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다음은 세속적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자신에 의해, 자신을 위해 사는 교회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어떻게 바꾸고 개혁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❹. 어떤 분을 다음 교황으로 선출할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고 경배함으로써, 교회가 자신으로부터 뛰쳐나가 실존적 변방을 향해 가도록 도울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산성 풍부한 어머니가 되게 하고, 복음화에 따르는 감미롭고 위로에 찬 기쁨을 느끼며, 거기에서 활력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이런 발언으로 동료들을 감동시키고 콘클라베의 분위기를 확 바꿨던 베르골료 추기경이 교회의 최고 목자로 선출되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던 첫 순간부터, 세상은 이분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그대로 옮기는 모습을 보고 계속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목 대헌장이라고 평가되는 「복음의 기쁨」이 반포된 뒤부터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각과 방침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이 성직자와 수도자뿐 아니라, 특히 하느님 백성 가운데에서도 절대 다수를 이루는 평신도들에게도 교회 밖으로 나가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라고 촉구하시며 주신 여러 가지 구체적 지침은, 교회의 전통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간에 우리 가톨릭인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추기경 시절이던 2010년 한 예수회 잡지와의 대담에서 하신 이분의 말씀입니다.

▲ 2015년 교황청을 정기방문한 필자 이병호 주교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이분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대단히 심각한 병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도취 혹은 자폐증 -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자기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이런 중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영성의 세계에 담고 있지만 정신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짠 맛을 잃은 소금"(마태 5,13) 혹은 "잘려 나간 가지"(요한 15,6)처럼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거나 불에 던져지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랫동안의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로 사제나 수도자들이 복음선교에 뛰어들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걱정스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복음화 활동이 전문가들이나 하는 일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주는 대로 받기나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밖으로 나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데에 오랜 준비나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 첫 제자들을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길을 받자마자 곧바로 달려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소'(요한 1,41) 하고 기쁘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바오로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복음의 기쁨, 120항).

4. 그렇다면 신앙이나 신학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그런 이들을 믿고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교황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식으로 써서 잘 알려지게 된 개념(교회헌장 12항)을 다시 꺼내어 좀 더 발전시키십니다. "신앙감각"(119, 198항)과 "공본성성"(119, 125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실상 겹쳐지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감각'이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이라는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본다는 다섯 가지 기본 감각은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냄새를 알아내는 개의 후각, 공중에 높이 떠서도 땅위에서 기어 다니는 작은 동물을 보는 매의 시각, 남극에서 나는 짝의 소리를 북극에서 듣는다는 고래의 청각 등, 이치로 따지고 논리의 연결 고리를 헤아리는 지성 능력이 없는 동물들이 특정 분야의 감각에서 보이는 능력은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뜨거운 물건에 닿았을 때처럼, 감각은 두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감각기관이 감지한 것을 척추신경이 받아 곧바로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감각이 두뇌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바로 이 점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믿음이 '신앙감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성을 동원하는 연구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새로운 감각이 믿음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본능적으로 식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믿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느님의 본성을 함께 지니게 된다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본성을 함께 지니게 된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공본성성共本性性"입니다. 말은 생소하지만, 내용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귀에 낯설고 말마디로만 보자면 어렵게 느껴지는 데도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것은 언어적 표현 이전에, 교회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쌓아온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낫 놓고 기억지도 모르지만" 믿음이 두터운 이가 신학 박사 학위를 여러 개 받은 사람보다 하느님에 관해서 더 분명하고 깊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계속 체험해 왔고, 그런 현상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려다 보니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소화 데레사가 그 좋은 예의 하나입니다. 글을 배워 겨우 읽을 줄이나 알 뿐, 신학이나 성서를 체계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는 데다, 15세에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 24세에 삶을 마쳤지만,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성녀를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2천 년 역사에서도 몇 안 되는 "교회 학자"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하나이며 신학자로서도 손꼽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한스 우르스 폰 발따사르는 소화 데레사가 성서와 신학의 핵심을 꿰뚫어 알고 있는 현상을 보고, 가히 경악할 정도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은 본성을 지니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신앙감각을 통해 성령께서 불어넣어주신 산 지식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출신 지역인 남미에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가장 인상 깊고 폭넓게 체험하였습니다. 2008년 10월에 '하느님 말씀'을 주제로 열렸던 제12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남미의 온두라스를 대표해서 오신 주교님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일과 축일에 말씀의 전례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제가 부족하거나 없는 곳에서 말씀의 전례를 거행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어떤 지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부제나 혹은 주교가 인정하는 다른 사람이 말씀의 전례를 주도해야 합니다'(전례헌장 35,4). 1966년 3월 공의회에서 전례헌장을 반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온두라스의 촐루테까 교구의 마르셀 게렝 주교님은 시골 사람 17명을 대충 준비시킨 다음, 사제가 없는 외딴 지역으로 파견하여 성주간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대단히 만족하며 기뻐하였고, 성주간뿐 아니라 매 주일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 말씀의 사절'이라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2008년 현재) 온두라스와 인근의 다른 몇 나라에 약 만 명의 하느님 말씀의 사절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제 성소도 부쩍 늘어나서, 온두라스의 경우, 젊은 사제들은 모두 하느님 말씀의 사절로 활동했던 이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대중 신심"(122-125항)의 적극적인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하신 바오로 6세 교황님의 말씀대로, 대중 신심은 하느님 앞에 "철부지 어린 아이"(마태 11,25)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신앙 표현입니다. 그것은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나 똑똑하다는 자들의 식견"(1고린1,19)과는 대조됩니다. 성지순례나 성모님께 대한 각종 신심행위, 그리고 전통적 종교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종교적 축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겉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고, 때로는 미신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실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판단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착한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복음의 기쁨, 125항). 교황님은 대중 신심이 신학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같은 곳)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 다음 호에 계속

평신도 양서

정리
류주희 편집위원

송차선 지음/ 분도출판사
125×210/ 120면/ 10,000원

자유로운 영혼을 위하여

– 송차선 신부와 함께하는
1박 2일 대침묵 두 번째 피정

전작 『화해와 치유』에 이어 1박2일 대침묵 피정을 안내하는 송차선 신부의 두 번째 묵상집이다.

암 투병과 요양의 시간을 겪으며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포기와 비움을 묵상한 저자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위한 영적, 심리적 지침을 제시하며 자유롭고 굳건한 신앙생활로 신자들을 안내한다.

자신과 먼저 화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는 첫걸음이며 자신이 완전할 수 없음을, 부족할 수 있음을, 나약할 수 있음을, 못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귀띔한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부자유스러움이므로 내 안에 부정적인 나, 원죄로 물들어 있는 나에게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든 거부하든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며 인간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인호 지음/ 생활성서사
140×200/ 272면/ 14,000원

신앙도 레슨이 필요해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깊은 신앙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때 유익한 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치료하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심리치료'로, 자각하기 어려운 신앙 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자가 지녀야 할 자격으로 '인간에 대한 깊고 온전한 이해'를 강조하는 영성심리 전문가 김인호 신부는 흐트러짐 없이 다양한 고민과 물음에 대해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쾌한 처방으로 접근하면서도 진심을 담은 위로와 가슴 따뜻한 충고를 놓치지 않는다.

거룩한 신앙의 길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저자의 조언은 위로와 격려를 넘어 삶과 신앙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

안여일 지음/ 가톨릭출판사
127x188/ 204면/ 10,000원

내가 먼저 희망이 되어야지

평소 나눔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살다가 40대 후반 유방암 진단을 받고 죽음 앞에 선 저자가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 완전히 새로운 봉사의 삶을 살게 되면서 30년 넘게 해온 여정을 담았다.

'유방암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저자가 호스피스 봉사, 본당 연령회 활동을 하며 만나게 된 사람들의 애절한 사연과 그들과 함께하며 겪은 일들 뿐 아니라 어린 시절 같은 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연들도 다뤘다.

도움이 필요한 이가 누구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친구가 되어 헌신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다. 꾸밈없고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다.

엔도 슈사쿠 지음/ 맹영선 옮김
성바오로
143×210/ 240면/ 13,000원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으니 나는 하느님과는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책을 읽어보세요." 저자 엔도 슈사쿠의 말이다.

신앙은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기', '허세부리지 않기' 라는 토양 위에 성립한 것이었다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저자의 유머러스하지만 진지한 사유와 솔직담백함이 읽는 내내 푸근하게 와 닿아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한다.

가톨릭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비신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내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고뇌하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신자생활의 어려움과 진실한 신앙생활에 대한 불편함은 물론 성경저술의 배경을 비롯해, 크리스마스의 구유에 깃든 신학적 지식과 믿음의 진정한 의미까지 풍성하게 나눈다.

수도회 영성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의 영성과 삶

글 **정혜원 체칠리아**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 회원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는 2005년 5월 31일 부산교구장 정명조 주교의 승인과 함께 시작되었다.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의 설립자인 하 안토니오 몬시뇰은 수녀회의 영성과 사명을 평신도들에게로 확대하여 활성화하고자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를 설립했다.

우리의 영성과 사명

"회원들이 세속에서 어느 수도회의 정신에 동참하여 그 수도회의 상급 지휘 아래 사도적 생활을 살고 그리스도교 완성(완덕)을 향하여 노력하는 단체들"(교회법 제303조)이라는 교회법의 정의대로 우리 재속3회는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의 정신과 사명을 그대로 이어서 따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는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 안에서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는 평신도 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도모하는"과 같은 회헌의 규정대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성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영성의 핵심이다.

그럼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 또는 이 성심에 대한 공경이 우리 재속3회의 영성과 사명에 근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1917년 파티마에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신 하느님의 뜻이 우리 재속3회의 설립에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사명은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공경하며 그 안에서 예수 성심께 흠숭을 드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와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과 희생과 보속의 정신으로 매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의 봉헌의 삶을 살아간다."

올해 마리아의 파티마 발현이 100주년을 맞았지만 "파티마의 예언적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다."라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대로 그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는 평신도 단체

▲ 서울지구 회원들

우리의 구성과 삶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는 서울, 부산, 대구와 구미에 각각 지구를 두고 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있다. 40대에서 60대 자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형제들은 10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구별로 매달 열리는 모임에서 양성 단계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각 지구 안에서 가까운 지역별로 갖는 구역 모임에서는 주어진 과제와 주제 하에서 서로의 영적 삶을 나누고 영적 동반자로서의 사랑과 화목을 다진다.

우리는 수도공동체가 아니기에 세상 안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유한 영성과 사명을 살아간다. 그래서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재속3회는 본당 안의 단체 활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그날의 모든 일을 맡기면서 우리의 하루는 시작된다. 공동체 생활을 하며 수도생활에만 전념하는 수도자들과는 달리 누구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엄마 또는 아빠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사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다. 그런 만큼 이런 일상에 성무일도와 묵상기도를 더 얹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의 경우, 출근과 업무 처리로 오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침 성무일도를 놓치기 십상이다. 때문에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아, 성무일도!' 하며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일터가 교회 안이기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성체 앞에서 묵상기도를 하는 호사도 누리지만, 다른 회원들은 이 기본 의무를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도, 성경을 매일 펼쳐

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 세 번 삼종기도를 바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인데, 쏜살처럼 날아가는 일과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끝 무렵에 닿아 있을 때가 자주 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재속3회의 삶을 고집할까?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막연한 나의 확신이 아니라 파티마에 오신 하느님 어머니를 통하여 전해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재속3회의 일원인 우리의 일상은 이 과제 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삶에서 고유한 색채를 갖는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우리의 사명'대로,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와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과 희생과 보속의 정신으로 매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의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고유한 우리의 색채를 무척 좋아한다.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해 특별히 명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여기에 녹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난관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즉시 어머니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주님께 바치려고 노력한다. 때문에 내 마음과 입은 자주 중얼거리고 있고, 매 순간 이 정신에 깨어 있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고 우리 재속3회의 일원으로서의 고유성을 잃기 십상이다.

이런 만큼 호기심이나 흔한 신심단체 정도로 여기고 발을 들인 이들은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도중 하차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의 부족을 탓하며 늘 양심의 가책(?)을 지니고 사는 이들이 나를 포함하여 적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신심단체의 활동과는 달리 재속3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25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분주한 삶의 자리를 떠나 2박 3일간의 연례 피정에 임하고,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3회의 회헌과 회칙에 따라 정결과 가난과 순명 그리고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대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서약하고 있다.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적 시선을 천상에 두고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이 삶에서 얻는 영적 유익이 큰 까닭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일치에 이르는 그날까지 서툴고 뒤뚱대는 걸음이지만 조금씩 고쳐가며 걸어갈 것이다.

영화 '사일런스'

주님의 침묵, 침묵이 아님을

이대현 요나 국민대 겸임교수 · 영화평론가

침묵한다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인가

드라마
2017.02.28 개봉 | 15세 이상 관람가
159분 | 감독 마틴 스콜세지

"주님, 저는 어찌하면 됩니까?"

고통과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리 발버둥쳐도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닿아 구원받고, 길을 찾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주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한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인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런 주님을 향해 우리는 "당신은 정녕 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것입니까?" 하고 원망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울부짖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러나 침묵한다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인가. 발자국이 없어졌다고 나와 함께 걷다가 사라진 것일까. 뚜렷한 음성으로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나를 버린 것일까. 침묵 속에 이미 답은 있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업고 걸어가시고, 길은 이미 자신의 신앙 속에 있음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안다. 그래야 하느님의 복음을 진정 깨닫게 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그 가치의 숭고함을 참혹하게 증명하기 위해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순교와 박해'란 시간을 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침묵을 알았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까지 받아들이려는 주님의 기다림임을. 그것을 알게 된 예수님은 "아버지시여, 저의 생명을 바치오니 아버지의 의노(義怒) 대신에 인간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라고 간구했다.

순교와 박해. 이 두 수난의 역사가 없었다면 진정 하느님의 복음이 이 세상이 널리, 그리고 이토록 오래, 그리고 영원할 수 있었을까. 그 자체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그 비극 속에서 주님은 침묵했고, 그 침묵으로 주님의 존재는 더욱 분명해졌으며, 침

**원작인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제목 역시 〈침묵〉이다.
천주교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두 포르투갈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결코 우리보다 덜하지 않은 일본의 순교의 역사를 보여준다.**

묵은 침묵이 아니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로 그것을 증언했고, 이를 부정하는 인간들은 박해로 그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늘 승리는 박해가 아니라 순교였다.

어느 곳이나 주님을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눈먼 자들은 있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는 자들이었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앞서 일본도 그랬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막으려는 자들의 끔찍한 박해와 주님의 새로운 세상을 맞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아름답고 지고한 순교의 역사는 있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비록 일본이 과거 역사에서 우리에게 저지른 과오가 크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폄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주님의 역사이고,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도 목숨을 걸고 선교에 나선 이방인 신부가 있었고, 로마의 카타콤 같은 컴컴한 지하에서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원해 줄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국의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사일런스〉는 바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원작인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소설 제목 역시 〈침묵〉이다. 천주교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두 포르투갈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결코 우리보다 덜하지 않은 일본의 순교의 역사를 보여준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일본은 처음에는 천주교의 전파가 쉬웠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한 16세기 중반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 막부는 천주교도 그 하나라고 생각해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신자수도 30만이 넘을 정도였고, 지방의 한 다이묘는 전체가 천주교를 믿었다.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탄압은 시작됐다. 핍박에 시달린 백성들이 천주교를 점점 더 믿게 되자 위기감을 느껴 그리스도교 금지령을 내리고, 거센 탄압과 박해로 돌아선 것이다.

〈사일런스〉에서 예수회 신부인 로드리게스(앤드류 가필드)는 동료인 가루페(아담 드라이버)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에서도 박해가 가장 심했던 나가사키 지역으로 몰래 들어간다. 앞서 파견되었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인, 신앙의 스승인 페레이라 신부(리암 니슨)를 찾아서 만약에 소문대로 배교(背教)를 했다면 영혼을 구해주려고 했다.

그들이 도착한 일본은, 수천 명의 신자들이 참수당한 뒤 배교를 하고 오카다 산에몬으로 개명해 일본인 아내와 사는 스승 페레이라가 말한 대로 '나무가 절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늪과 같은 땅', '검은 땅'이었다. 그 속에서 로드리게스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묵주알을 나눠주고, 세례와 미사를 봉헌하는 일을 위태위태하게 수행해 나간다.

그러나 믿음과 사명감이 더 없이 굳은 로드리게스도, 상금까지 걸고 신자를 밀고하게 하고, 적발된 신자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가하는 참상 앞에서는 절망하고 신음한다. 그는 "이들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은 왜 이들을 선택했습니까?"라고 하느님에게 묻는다. 자신을 일본 땅에 밀입국시켜 준 길잡이로, 유다와 같은 때론 돈을 위해, 때론 자기만 살기 위해 배신을 밥 먹듯이 반복하고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나약함과 의

심에 용서를 구하는 기치지로에 분노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묻는다.

〈사일런스〉는 지옥 같은 현실보다 좋은 천당에 가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신자들, 그들과는 정반대로 생존을 위해 후미에(성화밟기)를 서슴지 않는 유약하기 그지없는 기치지로,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끝없이 고통스러워하며 다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스승인 페레이라가 그랬던 것처럼 배교를 선택하는 로드리게스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너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다른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배교를 선택하려는, “저들의 목숨을 저에게 맡기지 마세요.”라고 울부짖는 로드리게스에게 긴 침묵을 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가장 고통스런 사랑의 실천이다. 어서 하여라. 괜찮다. 나를 밟아라. 너의 고통을 안다. 너와 함께 가려고 십자가를 졌다.”

평생을 절망과 굴욕,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로드리게스를 끝까지 옆에서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마지막에 성화를 몰래 지니고 있다가 끌려가는 기치지로였다. 순교한 신자 모키치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십자가를 끝내 버리지 않고 손에 쥐고 천국으로 간 로드리게스는 배교자가 아닌 영혼의 순교자였다. 그들 모두의 믿음은 죽지 않았다. 그 어떤 박해와 죽음, 그로 인한 배신과 절망도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은 우리의 절규와 호소에도 침묵한다. 아니 침묵한 적이 없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거라.”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2017년 춘계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이하 한국평협)는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전주평단협) 주관으로 4월 7~8일 전주교구 천호성지 피정의 집에서 2017년 춘계 상임위원회를 갖고 2018년 설립 50주년 기념사업 건을 논의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한국평협 설립 50주년을 ‘희년의 정신’으로 뜻있게 지내기로 하고, 5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50년을 위한 평협과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한국평협은 7월 7~8일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한국평협 전반기 연수에서 평협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년정신을 담아 50주년을 지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한국 교회와 평신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과 개막 미사 강론을 통해 ‘복음화를 위해 교회는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뛰쳐나가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노드 권고 「복음의 기쁨」을 언급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주교는 특히 평신도들은 복음선포의 제일선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신앙감각과 공본성성(共本性性)을 삶의 증거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복음의 기쁨」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른 모든 문헌들의 기초가 되는 핵심 문헌이라며 이 문헌을 거듭 읽고 되새겨 실천해 주길 요청했다.

둘째 날 회의 참석자들은 천호성지 내 정문호(바르톨로메오) 손선지(베드로) 이명서(베드로) 한재권(요셉) 등 4위 순교성인들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묘소를 참배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일곱 말씀을 묵상하도록 조성한 가상칠언 묵상길을 순례하고 전주교구 총대리 김영수 신부 안내로 성물박물관을 돌아봤다.

파견미사를 집전한 김영수 신부는 “성령께 협조해 드림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달라.”고 당부하며 강론을 마무리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서울평협 시복시성 성지순례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는 해방 후에 순교하신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지난 4월 20일(목)~22일(토)까지 2박 3일간 60명의 참가자와 함께 순례를 떠났다.

평협 담당사제인 조성풍 신부(사목국장)와 평협 임원, 일반 참가자로 구성된 순례단은 첫날 옛 포천성당인 성 가브리엘 성당터에서 복자 홍인 레오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 죽림동 주교좌성당 성직자 묘소를 참배한 후 소양로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조성풍 신부는 강론에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신앙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하셨던 우리 신앙 선조들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그리고 동시대를 사는 이웃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신앙의 선조,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에는 6 · 25 전쟁 중 피난 온 사제들의 은신처였던 도문공소 터를 방문했다. 설악산 입구 상도문동 안쪽에 자리한 공소터는 지도에서 주소조차 찾기 힘들어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찾아가기엔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공소터에서 순례단은 뜻밖의 인연을 만났다.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님께 첫영성체를 받은 양재복 마르타 씨(79세)는 올해로 첫영성체를 받은 지 꼭 70년이 된다며 연신 미소를 머금고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며 신부님과의 일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어 순례단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어 방문한 양양성당에서는 이광재 신부 순교 기념관을 둘러보며 신부님의 순교이야기를 듣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도우려고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라고 말씀하신 이광재 신부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은 영동 신앙의 중심지였던 금광리공소와 묵호성당(6 · 25 때 학살당한 라 바드리치오 신부가 사목하던 성당)을 방문하고 삼척 성내동성당(6 · 25 때 진 야고보 신부 순교)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이어서 현재는 기록에만 남아있고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곧은정, 왕피리, 건사골 교우촌이 있었던 자리를 둘러본 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깊은 산중까지 숨어든 신앙선조들의 삶을 묵상하며 우련전 교우촌으로 가는 길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걸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시복시성위원회에서 준비한 '해방 후 순교자의 행적'에 관한 강의를 듣고 참가자들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 연극협회 회원인 한 참가자는 "우연한 기회에 성극에 출연하게 되면서 내 삶의 많은 변화가 있어 이번 순례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이번 순례를 통해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의 이야기가 많은 신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작품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면 회원들과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편의 권유로 함께 참석한 부부 참가자는 "우리는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 신앙선조들은 어떻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살 수 있었을까? 특히 오늘 예비신자가 치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받았기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멀리 부산에서 참석한 한 참가자는 "요즘 신부님들께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순례를 신청하여 함께 오게 되었다."며 "이번 순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례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안동관아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목성동 주교좌성당을 순례하고 마지막 일정으로 우곡성지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수덕의 삶을 사셨던 농은 홍유한 선생의 묘소가 모셔진 우곡성지에서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며 성지 담당사제의 강론을 통해 농은 홍유한 선생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를 극복하는 삶을 사셨던 농은 홍유한 선생의 삶은 당대와 그 후손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신앙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미사 후 참가자들은 갑자기 내린 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홍유한 선생의 묘소까지 기쁘게 오르고 2박 3일의 마지막 여정을 마무리했다.

● 2017년 서울평협 어머니학교 개강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는 지난 5월 2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30명의 수강생과 함께 '2017 어머니학교'를 시작했다. 어머니학교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강의다. 개강식에서 권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이 어머니학교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길 바란다. 하느님께서 관리하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중요한 축이 되어 훌륭한 가정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강의자로 나선 이광호 교수(사랑과 책임 연구소 소장)는 우리 시대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자유로운 성문화는 비행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범한 아이들, 나의 아이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영상들이 쾌락만을 보여주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박히게 된다. 성은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 생명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는 어머니학교는 오는 6월 21일까지 양승국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관구장), 권길중 회장(서울평협 회장), 조명연 신부(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조성풍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의 강의로 매주 수요일 5주간 진행된다.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과정' 125명 수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권길중, 이하 서울평협)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평신도아카데미 '리더십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평신도가 신앙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평신도 양성을 위해 개설한 서울평협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과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12주간의 긴 과정 동안 71명이 개근할 만큼 수강생들은 시종일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한국평협이 2015년부터 펼치고

있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배경과 실천방법에 대해 '답게 살겠습니다' – 형제애를 주제로 권길중 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강의에서 권 회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활기차게 될 것'이라며 '답게 살겠습니다'를 수강생들과 다짐의 의미로 함께 외치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대전교구 사도직단체 회장단 간담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 김민희 신부)는 4월 8일 새얼센터에서 24단체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사도직단체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 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교구장 주교님과의 만남', 음악 단체 'The With'의 공연, '시노드 단체 한마당 토론회'순으로 열렸다.

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각 단체에 교구장 주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시노드 준비위원회 평신도분과의 진행으로 개최된 '시노드 단체 한마당 토론회'는 교회 전반 상황에 대한 사도직단체 회장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 김민희 신부)는 5월 7일 성소주일과 함께하는 '2017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7회 생명주일을 맞아 대전가톨릭대학교에서 교구 청소년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를 열었다. 이번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에서는 다양한 부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대전 평단협은 올해 생명주일이 성소주일과 겹치는 것을 고려해 매년 가을에 진행하던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를 성소주일에 개최하였으며, 교구 설정 60주년인 2008년부터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를 진행하며 생명 문화 확산과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 본당 사목회장 피정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 김민희 신부)는 5월 13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2017 본당사목회장 피정'을 실시하였다. 83개 본당 96명이 참석한 이 피정은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를 주제로 '가정 안에서의 가치 살기', '그리스도인 가치 살기', '나, 너, 우리 가치 살기'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당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봉사하는 본당 사목회장들이 이 피정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

● 진산성지 순교자현양대회 한생명운동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담당 김민희 신부)는 5월 29일 진산성지에서 '한생명운동'을 실시하였다. 1,500여 명 교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신청과 장기기증에 관한 OX퀴즈 등이 펼쳐졌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고(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선종 1주기 추모미사

지난 5월 30일, 인천교구 제2대 교구장 고(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선종 1주년 기념미사가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오용호, 회장 곽하형) 주관으로 백석 성직자 묘원에서 있었다. 오전 10시 연령회연합회 연도단의 연도 후 오전 11시부터 교구장 정신철 주교와 교구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미사가 거행되었다.

다. 이날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시간은 망각을 낳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의 망각을 지웁니다. 1년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고(故) 최 주교님과의 일을 천천히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만 14년 동안 제2대 인천교구장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셨던 그 기억은 우리 신앙에 새록새록 그 의미를 더해갑니다." 라고 말했다. 미사 후 최 주교의 유고집 「갓 퍼스트(먼저 하느님께)」를 미사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나눠주며,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최 주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기를 청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7 상반기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말씀에서 사랑을! 성사에서 은총을!'을 주제로 4월 8일 교구청 지하 강의실에서 총 160여 명(신임 총회장 44명 포함)이 참가

한 가운데 2017 상반기 총회장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교구 사목교서 설명과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총회장들은 설문을 통해 각 본당에서 실시하는 교구 사목교서 실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본당 간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1부 '교구장 사목교서 설명' 강의에서 이근덕 신부(교구평협 담당사제, 교구 복음화국장)는 '우리 안에서 늘 함께하는 삼위일체인 하느님이 바로 소통의 원형'임을 강조하며, 본당공동체에서 사목자와 교우들 간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당부하며,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을 보내면서 자비의 정신을 얼마나 실천하고자 노력했는지 성찰하자."고 말했다. 2부 강의에서는 이재현 신부(교구 복음화국 부국장)가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에 대해 강의하며 "각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임을 인지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와 공부 그리고 나눔을 통한 교류와 지역공동체인 본당에서 성사의 은총의 맛을 들이는 평신도의 기본 사명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파견미사에서 "본당에 분주한 일이 많은 사순시기임에도 하루 종일 연수에 참가하여 교구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서로 소통을 나눈 총회장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7년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연수' 및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효수, 담당사제 이재화, 이하 의정부평단협)는 3월 31일~4월 1일 민족화해센터에서 의정부평단협 산하 단체장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년 평단협 연수 및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첫째 날, 이재화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 현실(2015년 인구조사 중심)',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의미 강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 만연, 금전만능 풍조와 극단적 대결, 양극화로 인한 불안, 불신, 불만이 교회와 단체까지 파고드는 현실이다. 내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단체의 정체성에 입각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느님께서 그 단체에 주신 카리스마를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별 토의(의정부교구의 '답게 살겠습니다') 후 나의 다짐(가정에서, 소속 단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을 나누어준 설문지에 적어낸 참석 단체장들은 "나의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혹은 주변의 잘못된 제도와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음을 고백하고 참회한다."고 밝혔다.

둘째 날, '의정부교구 사목방향(평단협 역할)'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의정부교구 이기헌 주교와의 대화는 각 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주교는 파견 미사 강론에서 "나와 다름(단체, 사회, 가정)을 존중해 주는 단체장들이 되어 의정부교구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표로 뽑힌 5명의 단체장이 '답게 살겠습니다' 선언문을 한 항목씩을 선포한 후 이 주교에게 제출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선언문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의 변화에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에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부터 쇄신하고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신앙인답게 가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신앙인답게 교회에서 내가 먼저 교우를 따뜻이 맞이하며,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신앙인답게 직장에서 성과나 결과보다는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신앙인답게 사회에서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일동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과 선언문을 구체화하여 신자들의 삶 속에서 '답게 살겠습니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평협 시성시복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8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년간 광안동 수영장대 순교성지에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4시간 동안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을 지향하며 도보순례를 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 시복식 이후 윤지충 바오로 외 123위의 시성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와 이벽 요한 세례자 외 순교자들의 시복을 지향하며 삼랑진에 있는 김범우 토마스 순교자 성지를 2015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도보성지순례를 계속해 오고 있다. 한편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에서도 지난 3월 11일에 같은 지향으로 울산 복산성당에서 기도와 함께 출발하여 태화강변을 거슬러 울산병영 순교성지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성지순례를 한다.

● 부산교구 제단체장 간담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부산평협)는 지난 4월 30일 교구청 5층 대강당에서 총대리 손삼석 주교, 선교사목국장 장재봉 신부를 모시고 교구 내 제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연합회 및 단체(직종단체 포함) 총 59개 중 23개 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 간 상호 협조, 정기적인 모임으로의 승격, 단체를 알리는 방법 등의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도용희 부산평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인 '본당공동체 복음화'가 본당뿐만 아니라 제단체 내에서도 활발하게 실천되어 복음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하는 '지구 살리기 운동'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실무담당사제인 장재봉 신부는 "어떤 활동이든지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행동이다.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기는 신앙 활동을 하자."고 말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신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워크숍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황병석, 총회장 안상덕)는 3월 18일 마산교구청 강당에서 신임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임 본당회장과 교구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황병석 신부는 강의에서 "본당사목회장과 교구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본당교우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그 역할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본당사목사제를 복음정신으로 바람직하게 보좌하여 신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회장의 진행으로 평신도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교구 평협 위원 워크숍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황병석, 총회장 안상덕)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교구 평협 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평협 위원 간의 친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거제 유섬이 묘에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황병석 신부는 강론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매우 힘든 것은 죽는다는 것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이다. 유섬이와 순교자들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두려워지고 무너지려 할 때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신앙으로 견디셨을 것이다. 우리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더 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지난 4월 1일 교구청에서 제2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건 1. 사목임원 단체장 연수 평가 2. 여성연합회 연수 및 발대식 평가 – 여성연합회 3. 교구 친교의 날 행사 준비 점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및 친교의 날 행사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는 5월 3일 영주 시민운동장 생활체육센터에서 제26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및 친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교구 40개 본당 중 24개 본당에서 1,300명이 참여하여 피구, 족구, 테니스, 6개 지구별 줄다리기 등을 진행하였고, 북부지구 봉화본당 성전기금 마련을 위한 국밥 판매도 있었으며, 교구사명선언문의 일부인 '서로 나누며 섬기는' 정겨운 시간들을 가졌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교님과 함께하는 사순 특강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나현식, 담당사제 김정용)는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주교님과 함께하는 사순 특강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특강과 대화는 김희중 대주교의 '하느님의 말씀은 선물입니다'(3월 29일), 옥현진 총대리 주교의 '당신은 선물입니다'(4월 5일), 최창무 대주교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4월 12일)의 주제로 이어졌다. 기존에 강의로만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교와 신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소중하고 행복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차 워크숍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평단협)의 2017년 1차 워크숍이 3월 17일 제단체 대표와 평단협 임원,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함께 하는 가운데 교구청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교구 설정 80주년 관련 제단체의 참여사업을 선정하고, 제단체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며, 새 교구장 서품 · 착좌식 관련 업무와 한국평협 전국상임위원회 주관 교구로서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지도사제인 김영수 총대리는 "새 주교님은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교구 평단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히 전주교구 주관으로 개최되는 한국평협 전국상임위원회(4월 8일, 전주교구 천호 피정의 집)에서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이한 전주교구가 기울여 온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 평단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모범을 타 교구 평협 임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7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 개최

제주교구에서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5월 18일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과 삼뫼소 은총의 동산에서 '하느님 섭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주제로 성모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개최되어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일본 교토 교구를 비롯하여 대만에서도 40여 명이 참가했으며, 타 7개 교구에서도 180여 명이 동참하는 등 총 3,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여 1,2부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다.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강론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무력충돌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성모님께 평화가 유지되도록 기도하고 의탁해 나가자고 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참석자 모두 천사부대가 수은등을 비추는 연못 둘레를 촛불을 들고 돌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 행진이 이루어졌다. 이 광경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천상

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말하며 감격했다. 제주교구 전 본당이 참여하는 성모의 밤 행사는 매년 5월과 10월, 2차례 걸쳐 개최된다.

● 태국주교회의 소공동체 관계자 제주 연수

태국주교회의에서는 타래 농생 대교구장(CHRM-NIERN SANTISUKNIRAN)을 포함하여 총 66명(사제 21명, 수도자 20명, 평신도 24명)이 지난 4월 24일~4월 28일(4박 5일)까지 제주교구에서 연수를 가졌다.

태국주교회의는 제주교구의 소공동체를 탐방하면서 한국천주교의 소공동체 정책과 조직을 이해하고 소공동체 양성 프로그램을 숙지하여 현재 태국 전체 인구대비 0.5%인 신자를 향후 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복음화의 의지를 밝히며 열띤 토론과 진지한 태도로 연수에 임했다. 방문단은 제주시내 5개 본당과 서귀포지역 5개 본당에 25개조로 편성되어 이틀간 해당 본당의 소공동체를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의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초대교회를 연상케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구 평신도 단체의 대표로 방문단을 맞으며 연수 봉사자로 함께했다.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

● 포콜라레 어린이 모임 〈4젠〉 가족 소풍

포콜라레운동(Focolare Movement)의 어린이 모임인 〈4젠Gen 모임〉에서 주관하는 가족 소풍이 지난 5월 20일과 21일, 대전과 서울, 대구 등지에서 열렸다. 특히 5월 21일 서울 이촌 한강공원 거북선 나루터 인근에서 열린 4젠 가족 소풍에는 어린이와 부모, 모임 보조자 등 총 12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소풍은 어린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략한 묵상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날리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열리는 포콜라레운동의 4젠 가족 소풍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가족별로 참가해 어린이들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된다. 4젠은 포콜라레운동의 어린이 모임에 참여하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 어린이들을 뜻하며, 이날 소풍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인 3젠들도 참가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회보 제호 변경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한국이사회는 2017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발간 해오던 '천사의집' 회보를 '한국 빈첸시오'로 제호를 변경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한국 빈첸시오' 회보는 세계의 빈첸시안들과 각 교구 빈첸시안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빈첸시안들의 동정과 활동 및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여 교회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사회에서는 상반기를 마감하며, 각 교구이사회 회장단과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와서 보시오"를 주제로 7월 15일~16일 1박 2일 동안 수원 오자남 학습관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은 하느님 사랑의 전달자로서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십니다.'라고 한 빈첸시오 성인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빈첸시안의 정신을 되새기는 장을 여는 것이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50주년 기념, 성령 1일 피정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회장 윤영수, 대표담당 김영철 신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성령쇄신 1일 대피정'이 지난 5월 14일 충북 음성 꽃동네 특별피정센터(사랑의 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1967년 미국 듀케인 대학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성령강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50년, 이번 1일 대피정은 성령 쇄신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열렸으며 전국에서 3,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표중관 신부(부산교구)는 50주년을 맞이한 가톨릭 성령 쇄신 운동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 2017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애 피정 및 경로대회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는 5월 5일~6일 서울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성라자로마을 아론의 집(경기도 의왕)에서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을 개최하였다. 각 교구 선교회의 레지오 마리애 단원과 일반 회원, 봉사자 228명이 참석한 이번 피정은 지역별 활동 보고와 미사, 본 협의회 지도신부인 김용태 신부의 강의와 친교의 시간 등으로 이루어졌다. 1박 2일 동안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은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파에 더 힘쓸 것을 다짐하였으며, 더 많은 선교회에서 레지오 마리애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아울러 피정 둘째 날인 6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운 장한 어버이와 시각장애 부모를 효성으로 모신 자녀 등 4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추기경상은 수원교구의 김진경 마리아 자매에게 수여되었다. 시상식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온 참 신앙인의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

● 한가협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회장 정성연, 담당사제 김정용)는 3월 27부터 28일까지 광주대교구 교구청 내에 있는 대건연수관에서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첫날 전국 12개 교구의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구의 소식을 나누고 금년도 총회의 교육주

제를 여성, 생명, 환경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최 교구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날에는 국립 5 · 18 민주묘지를 참배하여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를 바쳤다.

● 한가협 제43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회장 정성연,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한가협)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인천교구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민족 평화 통일의 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12개 교구의 여성회장 및 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인천교구 오용호 신부의 특강이 있었으며, 한가협 제22대 회장으로 김명자(소화데레사, 광주대교구) 회장이 선출되었다.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민족 평화 통일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도 결의하였다.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

● 소년단원 어울림 한마당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뚜스(단장 조상현, 담당사제 이정화)는 4월 23일 광주 가톨릭대학교 운동장과 실내 체육관에서 '모이고! 손잡고! 나누고!' 라는 주제로 소년단원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하였다. 격년으로 실시하는 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금년에는 성소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행사로 치러졌다. 202명의 소년 단원들과 53명의 성인 간부들이 함께 동기선 그리기, 핸들커버 통과하기, 청홍 판 뒤집기, 단체 줄넘기, 신발 멀리 던지기, 퀴즈빙고, 림보 전진 앞으로 등의 다채로운 게임을 하며 일치와 화합의 장을 만들었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소년단원들은 나주 소방서의 협조로 시행한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실제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배웠다. 또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도 받았다. 특히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제 성소 및 수도 성소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광주대교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모둠별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세나뚜스에서는 개인이 사진을 소장 할 수 있도록 확대 인화하여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

● 2017년 상반기 정기총회

한국ME는 2월 28일~3월 1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2017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15개 교구 대표팀, 한국ME 대표팀 및 상임위원 50여 명 참석하였다. 한국ME 대표팀은 아시아 ME 회의 내용 전달하였고, 15개 교구 협의회 대표팀은 각 교구의 활동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였다. WWME 한국협의회 40주년 전국가족모임 준비위원장 부부는 'WWME 한국협의회 40주년 전국가족모임 발대미사를 봉헌하며 그동안의 준비사항과 결과를 보고하였다.

● 제1차 팀 양성교육

한국ME는 4월 22일~23일 장충동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사제 두 분(발표 및 미사 집전)을 모시고 제1차 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25쌍의 부부들에게 사도직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 팀 부부의 바람직한 자세와 주말 발표문 유의점 등을 전달하였다.

● WWME 한국협의회 40주년 전국 가족 모임

한국ME는 5월 2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5개 교구 ME가족 7,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WWME 한국협의회 40주년 전국 가족 모임'을 개최했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2티모 1,6)를 주제 성구로 삼아 교황님과 각 교구장님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 한국ME 40년의 역사 리뷰 영상, 주제 발표(사랑의 도전), 교구별 퍼포먼스, 문재인 대통령 축하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염수정 추기경은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일으켜 세우며, 부부들의 참된 사랑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소명을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수행해 달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ME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청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 한국ME 가족을 위한 미사

한국ME 상임위원 및 미사 봉헌 부부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3월 18일, 4월 8일, 5월 13일)에 서울 명동 평화빌딩 별관 4층에서 한국ME의 발전과 ME가족을 위한 미사에서 다양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Editor's Letter

"인간의 삶은 단지 사건들의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라, 가장 연관성 있는 자료들을 선정하고 모을 수 있는 해석의 렌즈를 선택하여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역사이고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 자체로 명확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들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는 렌즈에 달려 있습니다. 렌즈를 바꾼다면 현실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렌즈를 통하여 현실을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올해 홍보 주일(5월 28일)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입니다. 교황님은 예수님 자체가 현실을 읽는 올바른 렌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는 어떤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기쁜 소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가 아닌 다른 렌즈를 들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국평협 50주년인 내년을 바라보며 봄호부터 역대 한국평협 회장 인터뷰 기사를 싣는 난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평신도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친 11-12대 류덕희 모세 회장을 인터뷰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똑바로 운동'을 펼친 13-14대 여규태 요셉 회장을 인터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평협에서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이 다짐대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렌즈는,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닮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규태 회장을 인터뷰하고 저녁식사를 겸해 술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해 1월 15일 소천한 신영복 선생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18년 동안 경향잡지 기자로 일하며 듣기를 업으로 삼았었는데, 말하기를 앞세우며 살아온 듯한 요즘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징역살이에서 터득한 인간학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사를 경청하는 것을 최고의 '독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에 나누어서라도 가능하면 끝까지 다 듣습니다. 유심히 주목하면 하찮은 삶도 멋진 예술이 됩니다. 예술의 본령은 우리의 무심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편집장 배봉한 세례자 요한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 발간과 관련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7년 3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atholic.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녜스	tjclass@hanmail.net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프란치스코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공지 사항

평신도 원고모집

한국평협이 개편 발행하는 계간 '평신도'는 교회 내 각종 정보와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들의 소식으로 엮는 종합정보지입니다. '평신도'에서는 열린마당 코너의 생활수필에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원고의 양은 200자 원고지 10매입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